

# 전남 농어촌학교 60여곳 졸업앨범도 못찍고 졸업

### 수익자 부담 제작...경제적 여력 없거나 소규모 학교 '인감생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 안전공제·보험 홍보 부족으로 겹쳐

학교 졸업 앨범이 수익자 부담으로 제작되는 구조여서 학생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섬지역 학생들은 졸업 앨범조차 받지 못하고 졸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2일 신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된 목포·해남·영암·진도·신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졸업 시 졸업장과 함께 당연히 받아야 할 졸업앨범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60여 곳에 달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824개교 중 앨범을 제작하지 못하는 학교가 2017년 66개교, 2018년 71개교, 2019년 61개교에 달했다. 도시 학

교로만 이루어진 목포교육청의 경우 64개교 전체 학교가 앨범을 제작했지만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교육청의 경우 37개교 중 무려 11개교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아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앨범제작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것"이라며 "하지만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따라 소수 학교임에도 인터넷 제작을 통하거나 학교 부담으로 앨범을 제작하는 학교도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각 지역 교육장들에게 올해 만큼은 작은 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교육당국의 비용 부담으로라도 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

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재홍 신안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장들은 "그동안 앨범제작에 대해 학교에서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며 "앨범제작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올해부터는 전 학교에서 앨범을 제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졸업 앨범 제작비도 학교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학교별 제작 단가를 살펴보면 1만7500원부터 19만8000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교육청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가 시행 중인 '도민 안전공제·보험'이 홍보 부족으로 겹쳐 있다는 지적도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스포츠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상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일 전남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대비를 위한 복지인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하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22개 시·군 지자체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2억3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도민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2억4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13~14일 김치 경연대회 응용요리대회 17팀 경연

광주시는 "13일과 14일 광주김치타운에서 대한민국의 김치경연대회와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27회째를 맞이하는 광주세계김치축제를 계승하여 13일 전국 요리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가 열리며, 14일에는 김치의 세계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모집공고를 통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치경연대회 참가자 20명과 김치응용요리대회 참가자 17팀(2인)이 참가하며, 식품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재료의 구성과 창의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광주세계김치축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관심 있는 시민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축제 공식홈페이지(www.kimchifestival.kr)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김치경연대회는 전국에 숨어있는 김치 장인 발굴과 가족 간, 세대 간 김치문화 전승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며 "김치중추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및 우리지역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세계김치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바다 품은 자전거길 40선' 전남 18개 '전국 최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바다를 품은 자전거길 40선'에 전남에서 전국 최다인 18개 노선이 선정됐다.

선정 결과 바다를 맞대고 이어진 자전거도로를 따라 독특한 풍광과 향토색을 느낄 수 있는 전국 23개 지자체의 40개 노선이 선정됐으며, 전남도는 전국 최다인 9개 시·군 18개 노선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여수 금오도를 비롯 고흥 거금도부터 소록도 구간, 신안 임자도, 완도 생일도, 강진만 생태자전거길 등 해안도로 자전거길이 선정됐다. 특히 은빛 모래를 이룬 신안 대광해변과 생태 가치를 뽐낸 강진만 갈대해역,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금오도 자전거길 등 탄성을 자아낼만한 코스도 대거 포함됐다.

자전거길 노선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과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게시돼 언제든지 내려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립나주숲체원 개원 기념식수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12일 오후 나주시 경현동에서 열린 국립나주숲체원 개원식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가족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 14일 국립광주과학관서 열려

광주시가 주최하고 국립광주과학관과 북구청이 공동 주관하는 '2020 인공지능 골든벨' 행사가 14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표도시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시가 인공지능과 첨단과학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미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된다.

골든벨은 지난달 12~30일 접수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팀, 100명의 참가자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인공지능 및 과학 상식을 겨룬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부모가 2인 1팀으로 구성해 참가한다.

시상으로는 골든벨과 실버벨을 올린 각각 1명에게 광주시장상을 수여하고, 브론즈벨을 올린 2명에게는 북구청장상, 노력상 3명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장상을 수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 기존 사업 유지 수준

### 1조1985억원 투입 계획 중

### 민간공원 토지매입비 1조807억

광주시의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광주시의회 정순에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환경생태국은 내년도 그린뉴딜 관련 13개 사업에 1조19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조807억원을 제외하

면 실제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10%(1178억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광주형 그린뉴딜 13개 사업 중 5개만 신규이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재탕'이다"고 지적했다. 국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린뉴딜과는 관련이 없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를 핑계로 기존의 사업만 유지하려는 것은 광주시가 그린뉴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관광지 주변 음식점 1250곳 전남도 '방역 특별점검'

전남도가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산에 따라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함께 비위생적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섰다.

오는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아쿠아플라넷 등 도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2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도 및 시·군 직원 124명과 함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시·군을 교차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중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비롯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 및 고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선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필요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콜라텍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또 도내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 605-1115

대학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56
		성경연구학과(Th.M.)	10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